

## 역고정관념의 암묵적 활성화와 인상형성: 남녀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나 은 영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1)역고정관념(counter-stereotype)의 암묵적 활성화가 고정관념 불일치 인물(예: 남자같은 여자, 여자같은 남자)에 대한 인상을 실제로 좋게 만들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2)이와 같은 역고정관념 또는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인상형성에 체계적인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판단자들 자신은 이런 과정을 거의 의식하지 못함을 보임으로써 암묵적(implicit) 인지과정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사전조사를 거쳐 점화행동 활성화 질문지와 인상판단 질문지를 만든 다음, 이 두 가지가 별개의 실험인 것처럼 하여 112명의 피험자들이 이 두 질문지 간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의 독립변인은 (1)점화행동의 긍정성·부정성, (2)점화행동의 고정관념 일치 여부(역고정관념 활성화·고정관념 활성화) - 중성적 행동의 활성화 집단은 통제집단, (3)판단인물의 고정관념 일치·불일치 여부, 그리고 (4)판단인물의 성별로서 2×2×2×2 요인설계였다. 종속변인은 자기주장적 인물 또는 수줍은 인물로 묘사된 영화와 영희에 대한 (1)호감, (2)평소 좋아함, (3)공격성 지각 정도(일종의 조작 확인), 및 (4)사회적 거리감이었다. 연구 결과, 대체로 긍정적 역고정관념 활성화와 부정적 고정관념 활성화가 고정관념 불일치인물에 대한 호감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켰다. 반대로, 부정적 역고정관념 활성화와 긍정적 고정관념 활성화는 고정관념 일치인물(예: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을 불일치인물보다 더 좋게 보는 종래의 관점을 유지 또는 강화시켰다. 피험자들은 고정관념 또는 역고정관념 활성화 조건에 따라 남녀 인물에 대해 현저히 다른 인상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활성화 자극들의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기억 정도와 인상형성 평균치 간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성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과정에 의해 인상형성과 같은 우리의 판단과정이 체계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끝으로, 강한 태도의 자동적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고정관념 연구들을 이론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 하나는, 기존의 고정관념 연구들이 대부분 “고정관념(stereotype)”의 활성화 과정은 많이 다루고 있지만 “역고정관념(counter-stereotype)”의 활성화 과정을

다른 연구들은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역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감소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역고정관념이든 고정관념이든 그것이 활성화되어 우리의 판단 과정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의식적인 기억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활성화 과정” 내지는 “암묵적 인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 연구비 지원(1996. 8 - 1997. 7)으로 이루어진 것임.

지(implicit cognition) 과정”에 의한 것임을 보이코자 하였다.

Greenwald와 Banaji(1995)는 태도, 자존감, 및 고정관념과 관련된 과정들이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즉, 행위자가 내성하여 알아낼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인 기존의 연구들을 암묵적 사회인지(implicit social cognition) 개념으로 통합하여 개관하였다. 암묵적 인지과정은 “과거 경험의 흔적이 어떤 수행에 영향을 주되, 그렇게 영향을 준 이전의 경험을 자기보고나 내성법으로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경우의 인지과정”이라고 정의된다(Greenwald & Banaji, 1995, pp. 4-5).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도 이러한 암묵적 인지과정이 상당부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암묵적 또는 무의식적 인지라는 개념은 지난 10년 간의 태도 연구들에 관한 나은영(1994)의 개관논문에서 지적했듯이 사회인지 연구기를 거쳐 오면서 태도 개념이 사회인지와의 접목을 이루어 보다 정교하게 발전해온 결과로서 얻어진 하나의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Banaji와 Greenwald(1994)는 특히 이러한 암묵적 인지과정을 고정관념화(stereotyping) 과정과 편견(prejudice)에 적용하여, “사회적 집단에 관한 신념이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한 판단에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무의식적 고정관념화(unconscious stereotyping)”라고 명명하였다(Banaji & Greenwald, 1994, p. 56).

암묵적 인지과정을 내세우는 학자들은 의식적인 자기보고법이 아닌, 간접적인 태도 측정치가 진짜 태도일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간접적인 태도 측정치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최근에 Greenwald, McGhee, 및 Schwartz(in press)는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라는 간접적 태도 측정법과 관련된 일련의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 범주들끼리 컴퓨터 키보드상에서 같은 반응키를 이용하도록 하면(예컨대, “꽃이름은 오른쪽 키, 벌레이름은 왼쪽 키”를 누르게 하는 과제와 “기분좋은 단어는 오른쪽 키, 기분나쁜 단어는 왼쪽 키”를 누르게 하는 과제를 함께 하게 하면), 덜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

범주들끼리 같은 반응키를 이용하도록 할 때보다(예컨대, “꽃이름은 오른쪽 키, 벌레이름은 왼쪽 키”를 누르게 하는 과제와 “기분나쁜 단어는 오른쪽 키, 기분좋은 단어는 왼쪽 키”를 누르게 하는 과제를 함께 하게 할 때보다) 반응시간이 더 짧아짐을 보였다. 그 밖에도 Wittenbrink, Judd, 및 Park(1997)는 미국의 흑인과 백인에 관한 인종적 고정관념이 자발적으로 활성화(spontaneously activated)되도록 “흑인” 또는 “백인”이라는 단어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점화 자극으로 제시(즉, 식역하 제시)한 다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판단하는 반응시간에 근거하여 인종 편견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이들이 측정한 암묵적 편견의 정도는 명시적으로 측정한 태도측정치와 신뢰로운 상관을 보였다. Fazio, Jackson, Dunton, 및 Williams (1995)도 이와 유사하게 흑인과 백인의 얼굴을 제시함으로써 기억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여 인종적 태도를 자연스럽게(unobtrusively) 측정하였다.1)

인물 판단에 작용하는 암묵적 고정관념화 과정을 지필문지법을 이용한 실험으로 검증한 Banaji, Hardin, 및 Rothman(1993)의 연구는 본 연구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 이들은 목표인물의 사회적 범주(예: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활성화된 고정관념 정보를 달리 사용하며, 이런 과정은 피험자의 의식적인 인식 없이(즉, 무의식적으로) 일어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1)의존성은 여성 인물과 고정관념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속에서 의존적인 행동들이 활성화되었을 때에는 (중립적인 행동들이 활성화되었을 때보다) 여성을 더욱 의존적으로 평가하며 남성 인물은 더 의존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2)공격성은 남성 인물과 고정관념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속에서 공격적인 행동들이 활성화

1) 이와 같은 간접적인 태도측정 방법은 한국의 지역감정이나 세대차, 통일에 대한 태도, 혹은 직장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 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개발될 여지가 있다. 특히 한국 문화는 고맥락(high context) 의사소통을 하는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되는데(차재호·나은영 역, 1995 참조),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태도는 사회적 규범에 맞도록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간접적인 태도측정치가 진짜 태도를 더 잘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되었을 때에는 (중립적인 행동들이 활성화되었을 때 보다) 남성을 더욱 공격적으로 평가하며 여성 인물은 더 공격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 실험을 할 때 남녀 이름들을 사용함으로써 연구가 성역할과 관련된다고 의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동적 또는 암묵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을 떠올리도록 하는 방법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Banaji와 Greenwald(1995)의 연구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먼저 72개의 남녀 이름들(유명한 여자 이름 18개, 유명한 남자 이름 18개, 유명하지 않은 여자 이름 18개, 유명하지 않은 남자 이름 18개)이 얼마나 발음하기 쉬운지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이 이름들에 대한 친숙도(familiarity)를 조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24-48시간 후에 72개의 친숙한 이름과 72개의 친숙하지 않은(유명한 남녀이름과 유명하지 않은 남녀이름이 역시 반반씩) 각 이름이 유명한지 유명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유명하지 않지만 최근에 보았기 때문에 (친숙감이 증가하여) 유명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향, 즉 오경보(false alarm)가 남성이름의 경우에 더 두드러짐을 보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험자들 자신은 자기들의 판단에 성별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즉, 남성이름이 여성이름보다 “유명함(fame)”과 더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 고정관념 자체가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고정관념적 신념)을 “유명함”의 판단에 사용하는 과정이 무의식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고정관념이 아닌 역고정관념(counter-stereotype)의 활성화 과정은 좀 더 드물게 “통제된 과정(controlled process)”과의 관련 속에서 연구되어 왔다. 즉, 고정관념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지만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억제하는 것은 의식적인 통제의 결과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Devine(1989)은 편견에 관여하는 과정을 “자동적 과정”과 “통제된 과정”으로 분리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편견의 정도가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머리 속에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의 지식구조는 같다. 다만, 편견이 심한 사람은 어떤 집단 소속 구성원의 존재(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징적인 자극)를 보고 고정관념을 자동적으로 떠올리지만, 편견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고정관념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억제(inhibition)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Gilbert와 Hixon(1991), Fiske와 Neuberg(1990), 및 Brewer(1988) 등은 고정관념의 “활성화(activation)” 과정과 고정관념의 “적용(application)” 과정을 구분하고, 전자는 자동적인 처리과정을, 후자는 통제된 처리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라도 사투리나 피부 색깔을 보고 호남인이나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떠오르는 과정은 자동적이지만, 이렇게 떠오른 고정관념을 후속 판단에 적용하는 과정은 의식적인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Blair와 Banaji(1996)는 기존의 연구들과 조금 달리 고정관념의 “활성화” 과정 자체에 의도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고정관념의 자동적 활성화 효과를 역전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남녀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의 자동적 활성화 과정에 관한 일련의 실험들을 통해 세 가지 결론을 얻어냈다: 즉, (1)인지적 부담(cognitive constraints)이 있는 보통 상황에서는 고정관념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2)역고정관념 의도(counterstereotype intention)를 갖게 한 조건에서는 인지적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도 고정관념 활성화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리고 (3)인지적 부담이 낮은 상황에서 역고정관념 의도를 갖게 하면 고정관념 활성화가 완전히 역전된다는 결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고정관념도 고정관념과 마찬가지로 피험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즉, 암묵적 내지는 무의식적으로) 인상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역고정관념이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는 예는 실제 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TV 광고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남성이나 공장에서 철모를 쓰고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 평소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한 인상이 부지불식간에 호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부지불식간”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암묵적 또는 무의식적 인지과정에 해당하는데, 그 의미는 그런 역고정관념적 행동에의 노출이 판단

에 영향을 줘도 불구하고 판단자들 자신은 바로 그것이 자기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무척 바뀌기 힘든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지역감정을 없애자” 또는 “남녀차별을 없애자” 하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지역감정이나 남녀차별이 없어지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진정 고정관념을 바꾸고 싶다면 이런 암묵적인 인지과정을 응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Lepore와 Brown(1997)은 고정관념 활성화 연구를 두 종류로 나누는데, 그 하나는 “범주(category)”를 접화(priming)시켜서 고정관념의 내용을 활성화(activation)시키는 연구들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관념의 내용” 자체를 접화 자극으로 사용하여 활성화시키는 연구들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 중 Wittenbrink, Judd, 및 Park(1997)의 연구는 전자에 해당하며, Devine(1989)의 연구는 후자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범주(남녀 이름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성별 범주)와 행동(고정관념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짝지우는 방식에 따라 고정관념 활성화 조건과 역고정관념 활성화 조건을 나눌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고정관념의 내용을 표현할 때 특질형용사들(예: 공격적이다, 의존적이다, 등)에 의존하기보다 “\_\_\_을 \_\_\_한다”와 같은 행동 자체에 대한 기술문들(예: 싸움을 한다, 요리를 한다, 등)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필질문지를 이용하면서도 실제 행동에 응용될 가능성이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배경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 연구가설

1.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인물과 불일치하는 인물에 대한 인상은 기억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1-1.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에 불일치하는 긍정적 정보가 기억 속에서 활성화되었을 때에는(즉, 긍정적

정적 역고정관념 활성화 조건에서는), ①성역할 불일치인물에 대한 호감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②성역할 일치인물에 대한 호감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 1-2.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긍정적 정보가 기억 속에서 활성화되었을 때에는(즉, 긍정적 고정관념 활성화 조건에서는), ①성역할 일치인물에 대한 호감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②성역할 불일치인물에 대한 호감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 1-3.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에 불일치하는 부정적 정보가 기억 속에서 활성화되었을 때에는(즉, 부정적 역고정관념 활성화 조건에서는), ①성역할 불일치인물에 대한 호감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②성역할 일치인물에 대한 호감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1-4.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부정적 정보가 기억 속에서 활성화되었을 때에는(즉, 부정적 고정관념 활성화 조건에서는), ①성역할 일치인물에 대한 호감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②성역할 불일치인물에 대한 호감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 인상 평가의 내용은 의식적으로 기억해낸 활성화 자극의 수와는 무관할 것이다(즉, 호감과 같은 인상평정 과정이 무의식적인 처리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 방 법

### 피험자

사전조사의 피험자는 전북대학교에서 “문화와 사회심리”를 수강하는 대학원생 6명(제1단계 사전조사)과 “일반심리학”을 수강하는 학부생 30명(제2단계 사전조사)이었으며, 본실험의 피험자는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학부생 112명(남녀 동수)이었다.

### 사전조사

먼저 본실험의 접화(priming) 자극으로 사용할 행

동기술문과 남녀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제1단계 사전조사 심리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들 6명에게 남성적-중성적-여성적, 긍정적-중성적-부정적 행동기술문들을 가능한 한 많이 생각하여 적도록 하였다.

제2단계 사전조사 제1단계 사전조사에서 얻은 행동기술문들 가운데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몇 문항 더 첨가하여 140개의 행동기술문을 선정한 다음, (1) 각 행동기술문의 남성성-여성성을 “매우 여성적(1점)”부터 “중간(4점)”을 거쳐 “매우 남성적(7점)”까지의 7점 척도 점수로 평가하게 하는 사전조사 질문지를 만들어, 15명의 학부생들에게 완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2)같은 행동기술문들의 긍정성-부정성을 “매우 부정적(1점)”부터 “중간(4점)”을 거쳐 “매우 긍정적(7점)”까지의 7점 척도 점수로 평가하게 하는 사전조사 질문지를 따로 만들어, 또 다른 15명의 학부생들에게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3(\text{남성적, 여성적, 중성적}) \times 2(\text{긍정적, 부정적}) = 6$  가지 유형의 행동기술문들을 선정하였다(부록 참조).

남성성-여성성과 긍정성-부정성을 묻는 2종류의 사전조사 질문지 후반부에 이름의 성별을 판단하는 과제를 첨가하였다( $n=30$ ). 이 결과를 토대로 행동기술문과 짝지을 남녀이름을 선정하였는데, 100% 남자이름 또는 여자이름이라고 한 것만 골라 본실험에서 사용하였다.

## 설문지

점화 행동 설문지 고정관념 또는 역고정관념의 활성화를 위한 점화 행동 설문지는 “\_\_\_가 \_\_\_에서 \_\_\_을 \_\_\_했다”와 같이 4어절로 된 30개의 문장마다 어절의 순서를 섞어 놓고 순서를 바로잡아 어절 번호를 쓰는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0문항 중 6문항은 남성성-여성성, 긍정성-부정성 차원에서 모두 중성적(7점 척도에서 평균치가 3.5 이상 4.5 이하인 행동기

술문들)인 “채우기 문항들(filler items)”이었으며(예: 잠을 잔다), 24문항들은 점화 행동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섯 종류로 구분되었다:

- (1) 고정관념 일치행동-긍정적 활성화 조건의 점화 행동 설문지는 남자이름과 긍정적인 남성적 행동, 여자이름과 긍정적인 여성적 행동을 짝지운 문장 24개(예: 민호가 창고에서 이삿짐을 나른다, 영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
- (2) 고정관념 불일치행동-긍정적 활성화 조건의 점화 행동 설문지는 남자이름과 긍정적인 여성적 행동, 여자이름과 긍정적인 남성적 행동을 짝지운 문장 24개(예: 민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 영미가 창고에서 이삿짐을 나른다), 그리고
- (3) 중성적 행동-긍정적 활성화 조건의 점화 행동 설문지는 중성적이면서 긍정적인 행동을 남녀이름과 골고루 짝지운 문장 24개(예: 승호/은희가 회의실에서 책을 읽는다)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 (4) 고정관념 일치행동-부정적 활성화 조건의 점화 행동 설문지는 남자이름과 부정적인 남성적 행동, 여자이름과 부정적인 여성적 행동을 짝지운 문장 24개(예: 철수가 체육관에서 친구를 때린다, 미자가 학원에서 수다를 떠다),
- (5) 고정관념 불일치행동-부정적 활성화 조건의 점화 행동 설문지는 남자이름과 부정적인 여성적 행동, 여자이름과 부정적인 남성적 행동을 짝지운 문장 24개(예: 철수가 학원에서 수다를 떠다, 미자가 체육관에서 친구를 때린다), 그리고
- (6) 중성적 행동-부정적 활성화 조건의 점화 행동 설문지는 중성적이면서 부정적인 행동을 남녀이름과 골고루 짝지운 문장 24개(예: 승호/은희가 마당에서 거짓말을 한다)로 만들었다.

인상판단 설문지 두 사람의 인물(수줍은 인물과 자기주장적인 인물)에 대한 인상을 판단하게 하기 위한 설문지를 만들었다. 인물묘사는 긍정적인 쪽이나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서술하였다. 이때

남성인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영호”라는 이름을, 여성인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영희”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가능한 한 인물묘사에서 이름이 자주 나오도록 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이 이름만으로 자동적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근거하여(예: 정진경, 1990), (1)수줍은 인물에 영희라는 이름이, 자기주장적인 인물에 영호라는 이름이 짝지워진 경우는 고정관념 일치인물에 대한 인상평가가, 반대로 (2)수줍은 인물에 영호라는 이름이, 자기주장적인 인물에 영희라는 이름이 짝지워진 경우는 고정관념 불일치인물에 대한 인상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수줍은 인물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영호/영희는 아주 수줍음을 많이 탄다. 그래서 영호/영희는 혼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을 척척 잘 해내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만 나서면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영호/영희의 이런 점이 때로는 부드러운 인상을 주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받아들여질 때도 있지만, 표현력의 부족으로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영호/영희는 승진에서 뒤쳐질 때가 많다. 영호/영희와 일을 함께 하는 동료들도 영호/영희를 편안하게 생각하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영호/영희의 우유부단한 면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나뉜다.

자기주장적인 인물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영호/영희는 아주 자기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영호/영희는 혼자 있을 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모든 일을 자기가 앞서서 이끌어 나간다. 영호/영희의 이런 점이 때로는 믿음직한 인상을 주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받아들여질 때도 있지만, 남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져 영호/영희는 따돌림을 받을 때가 많다. 영호/영희와 일을 함께 하는 동료들도 영호/영희의 능력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영호/영희의 자기주장적인 면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나뉜다.

피험자들의 반에게는 여성이름 “영희”를 수줍은 인물 묘사와 짝지우고 남성인물 “영호”를 자기주장적인 인물과 짝지워 묘사한 내용을 주고 판단케 하였다(즉, 고정관념 일치 인물에 대한 판단). 피험자들의 나머지 반에게는 남성이름 “영호”를 수줍은 인물 묘사와 짝지우고 여성인물 “영희”를 자기주장적인 인물과 짝지워 묘사한 내용을 주고 판단케 하였다(즉, 고정관념 불일치 인물에 대한 판단). 즉, 모든 피험자가 “영희”라는 인물과 “영호”라는 인물의 인상을 모두 판단하되, 반은 고정관념 일치인물들을, 나머지 반은 고정관념 불일치인물들을 판단하였다.

### 실험설계

독립변인 본 실험의 독립변인은 (1)점화행동의 긍정성·부정성, (2)점화행동의 고정관념 일치 여부(역 고정관념 활성화·고정관념 활성화) - 여기서 중성적 행동의 활성화 집단은 통제집단, (3)판단인물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4)판단인물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여부로서 2×2×2×2 요인설계이다. 이때 맨 마지막 변인(판단인물의 성별)만이 피험자내 변인이었고, 나머지 변인들은 모두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앞 세 변인으로 이루어지는 8개의 실험집단에 남녀 피험자 각 7명씩(n=14)을 무선배정하였다.

종속변인 가장 중요한 종속변인은 (1)호감 평정치로서, “전혀 호감이 안간다(1점)”부터 “아주 많이 호감이 간다(7점)”까지의 7점 단극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게, (2)“평소 좋아함”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것은 “아주 싫어함(1점)”부터 “아주 좋아함(7점)”까지의 7점 양극척도로 측정하였다.

인상평정에 중요한 두 종속변인을 측정한 다음, (3) 묘사된 인물이 얼마나 공격적인 인물로 지각되는지를 일종의 조작 확인(manipulation check)으로서 측정하였다. 이것도 호감과 마찬가지로 “전혀 공격적이지 않다(1점)”부터 “아주 많이 공격적이다(7점)”까지의 7점 단극척도로 측정하였다. 끝으로, 인상평정의 결과로서 달라질 수 있는 (4)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즉, 영호/영희와 같은 인물들 내 이웃, 직장동료, 친구, 연인, 또는 배우자로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를 차례로 묻는 질문을 첨가하였다.

## 실험절차

피험자들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두 실험을 시간절약을 위해 한꺼번에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첫 번째 실험은 인지심리학 교수님이, 두 번째 실험은 사회심리학 교수님이 하시는 실험이라고 말함으로써 두 종류의 실험이 서로 무관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 다음, 인지심리학 실험 설문지가 한 장밖에 되지 않으므로 먼저 하겠다고 하고 점화행동 설문지만 먼저 나누어 주었다. 이 점화행동 설문지(30문항, 1페이지)를 완성한 직후 수거하면서 인상판단 설문지(2페이지 -- 영호와 영희에 대한 판단 각 1페이지)를 나누어 주고 완성하게 하였다. 인상판단 설문지를 수거한 후, 백지 한 장을 나누어 주고 맨 처음 나누어 준 점화행동 설문지의 내용 가운데 기억나는 것들을 모두 적도록 하였다.

## 결 과

사전조사 결과는 부록의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여기서는 주요 종속변인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모든 종속변인을 분석할 때 영호에 대한 평가와 영희에 대한 평가를 따로 분석하여 피험자내 변인을 분리하였다. 즉, 2(점화행동의 긍정/부정성)×2(고정관념/역고정관념 활성화)×2(고정관념 일치/불일치 인물) 피험자간 요인 변량분석을 남성인물에 대해, 그리고 여성인물에 대해 따로 실시하였다.

각 종속변인에 대해 (1)중립활성화 조건을 제외한 2×2×2 변량분석 결과와 (2)중립활성화 조건의 평정치를 뺀(즉, 중립활성화 조건을 비교축으로 한) 값을 원점수로 한 2×2×2 변량분석 결과가 일치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첫번째 변량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중립활성화 조건(통제집단)의 평정치를 별도로 언급하고자 한다.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대체로 여성인물(영희)에 대한 평가가 남성인물(영호)에 대한 평가보다 더 예언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점화행동 설문지의 내용은 많이 기억해 내지 못했다( $M=3.55$ ,  $SD=1.99$ ). 이제 종속변인의 결과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호감 평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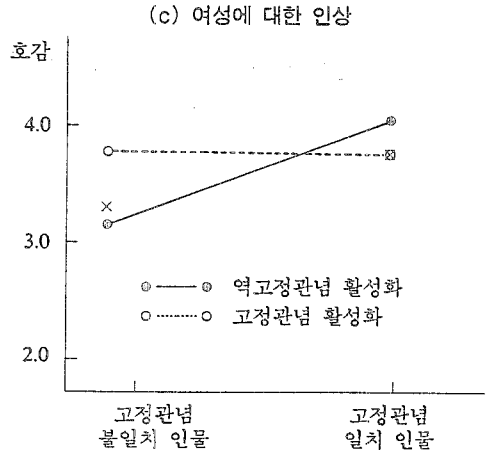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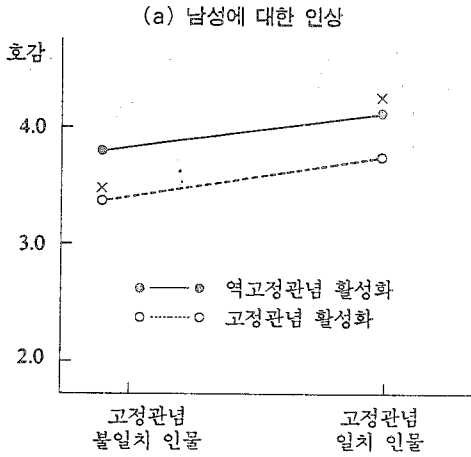
남성인물(영호)에 대한 호감 남성인물에 대한 호감 평정치의 결과는 그림 1의 (a)와 (b)에 나와 있다. 전체적으로, 역고정관념의 활성화(남성적 행동을 하는 여성, 여성적 행동을 하는 남성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림,  $M=4.14$ )가 고정관념의 활성화( $M=3.57$ )보다 남성인물의 인상을 더 좋게 평가하도록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F(1,104)=4.72$ ,  $p < .05$ .

좀 더 구체적으로, 긍정적 역고정관념의 활성화(긍정적인 여성적 행동을 하는 남성과 긍정적인 남성적 행동을 하는 여성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림)은 고정관념 불일치인물(수줍은 남성)의 호감을 약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나머지 경우는 대체로 고정관념 일치 인물(자기주장적 남성)이 불일치 인물(수줍은 남성)보다 더 좋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주효과 분석은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인물(영희)에 대한 호감 여성 인물에 대한 호감 평정치는 그림 1의 (c)와 (d)에 나와 있다. 전체적으로, (1)점화 행동의 긍·부정성, (2)고정관념·역고정관념 활성화, 그리고 (3)판단인물의 고정관념 일치·불일치 여부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여 본 연구의 예언을 잘 지지했다,  $F(1, 104)=5.63$ ,  $p < .05$ .

구체적으로, 긍정적 역고정관념의 활성화(긍정적인 남성적 행동을 하는 여성과 긍정적인 여성적 행동을 하는 남성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림)은 고정관념 불일치인물(자기주장적인 여성)의 호감을 증가시키고( $M=4.07$ ), 긍정적 고정관념의 활성화(긍정적인 여성적 행동을 하는 여성과 긍정적인 남성적 행동을 하는 남성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림)은 고정관념 불일치인물

부정적 활성화



긍정적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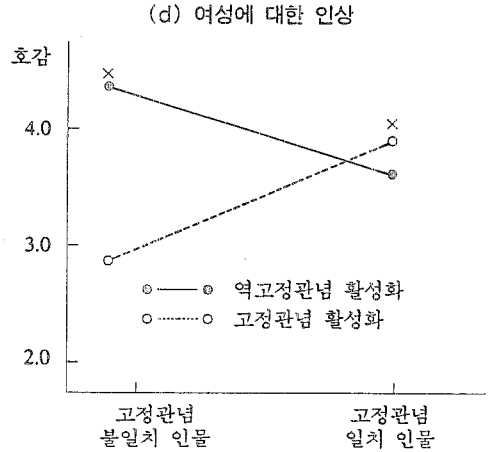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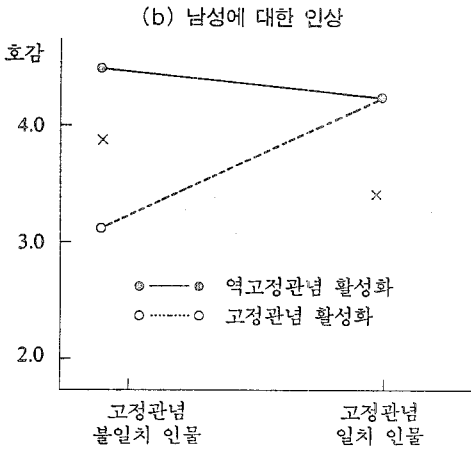


그림 1. 긍정적·부정적 역고정관념 및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남성과 여성 인물에 대한 단극척도상의 호감 평정치에 미치는 효과(×표는 중립활성화 조건의 평균치).

(자기주장적인 여성)의 호감을 감소시키는 것( $M=2.79$ )으로 나타났다,  $F(1, 52)=5.16, p < .05$ .

단순주효과 분석을 해본 결과, 긍정적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킬 때( $M=2.79$ )보다 긍정적 역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킬 때( $M=4.07$ ) 고정관념 불일치인물에 대한 호감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F(1, 26)=5.77, p < .05$ , 부정적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면( $M=3.71$ ) 부정적 역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킬 때( $M=3.14$ )보다 고정관념 불일치인물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여 고정관념 일치인물에 대한 호감과 거의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대체로, 긍정적 역고정관념의 활성화와 부정적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고정관념 불일치인물에 대한 호감을 고정관념 일치인물과 거의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기억해 낸 점화 행동(활성화 자극)의 수와 호감 평정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거의 없었다. 그림 1에서 남녀별  $2 \times 2 \times 2=8$ 개의 평균치마다 따로 모두 16개의 호감평정치에 대해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1개만 유의하게 나오고( $p < .05$ ) 나머지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ps > .05$ ). Banaji, Hardin, 및 Rothman(1993)의 분석 방법이 시사하듯이, 이처럼 유의하지 않은 상관



관계는 본 연구에서 얻어진 호감평정 결과가 의식적인 기억과정과는 무관한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역고정관념 활성화가 고정관념 불일치인물의 호감을 증가시키는 과정이 의식적인 기억과정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대부분 무의식적인(unconscious) 또는 암묵적인(implicit) 인지과정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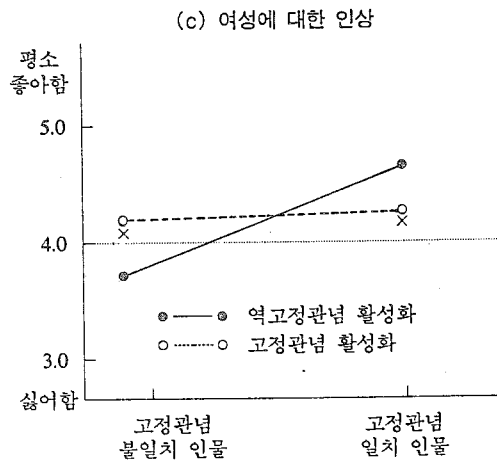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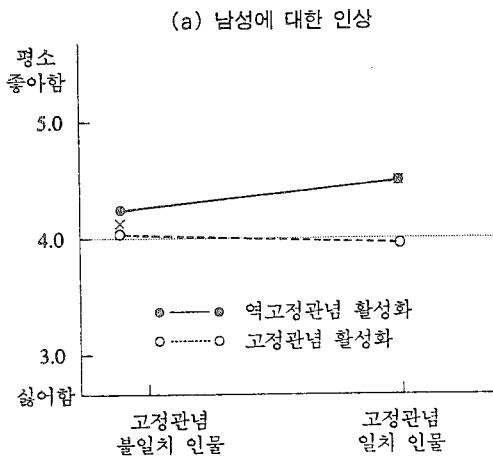
### “평소 좋아함” 평정 결과

“평소 좋아함” 평정 결과도 호감 평정치와 거의 유사하게 드러났다(그림 2 참조).

남성인물에 대한 “평소 좋아함” 남성인물에 대한 “평소 좋아함” 측정치는 그림 2의 (a)와 (b)에 나와 있다. 평균치의 방향은 대체로 예언과 일치하였으나 (즉, 긍정적 역고정관념 활성화 조건과 부정적 고정관념 활성화 조건이 고정관념 불일치 인물의 인상을 상대적으로 더 좋게 함), 변량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인물에 대한 “평소 좋아함” 여성인물에 대한 “평소 좋아함” 측정치는 그림 2의 (c)와 (d)에 나와 있는데, 이 결과는 호감 평정치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 부정적 활성화



### 긍정적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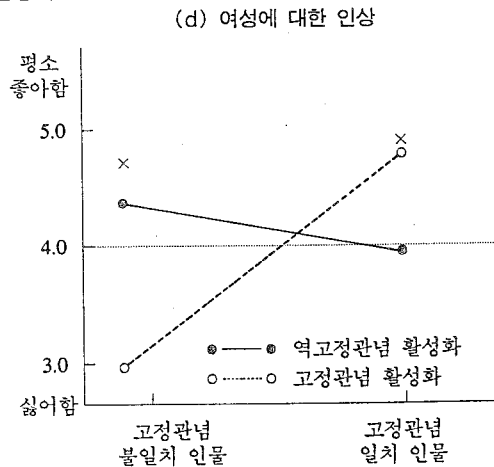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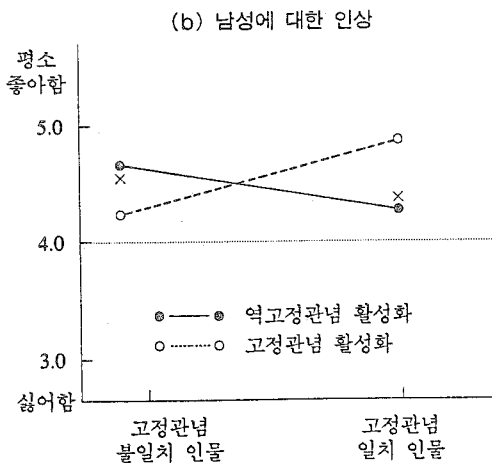


그림 2. 긍정적·부정적 역고정관념 및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남성과 여성 인물에 대한 양극 척도상의 “평소 좋아함” 평정치에 미치는 효과(×표는 중립활성화 조건의 평균치).

다. 전체적인 변량분석 결과, 대체로 고정관념 일치인물( $M=4.32$ )을 불일치인물( $M=3.80$ )보다 평소에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104)=4.77, p<.05$ . 이 결과는 유일하게 호감 평정치와 달리 나타난 결과이다.

여기서도 (1)점화행동의 긍·부정성, (2)고정관념·역고정관념 활성화, 그리고 (3)판단인물의 고정관념 일치·불일치 여부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크게 유의미하여 본 연구의 예언을 잘 지지했다,  $F(1, 104)=8.62, p < .01$ . 즉, 역고정관념 활성화의 내용이 긍정적인 때에는 고정관념 불일치인물의 “평소 좋아함” 평정치를 높이지만, 그 내용이 부정적일 때에는 역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긍정적 활성화 조건에서는 고정관념·역고정관념 활성화×목표인물의 고정관념 일치·불일치 여부 간 상호작용 효과가 크게 유의했다,  $F(1, 52)=8.29, p < .01$ . 단순주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긍정적 역고정관념의 활성화는 고정관념 불일치인물( $M=4.36$ )의 “평소 좋아함”을 일치인물( $M=3.93$ )의 “평소 좋아함”보다 더 높이는 경향이 있지만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긍정적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고정관념 일치인물( $M=4.50$ )의 “평소 좋아함”을 불일치인물( $M=3.00$ )보다 유의하게 더 높였다,  $F(1, 26)=9.41, p < .01$ . 반면, 부정적 활성화 조건의 결과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1)부정적 역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면 고정관념 불일치인물( $M=3.71$ )보다 일치인물( $M=4.64$ )에 대한 “평소 좋아함” 정도를 유의하게 더 높인다는 것,  $F(1, 26)=9.41, p < .01$ , 그리고 (2)부정적 고정관념 활성화 조건은 고정관념 일치인물과 불일치인물의 “평소 좋아함” 정도에 차이가 없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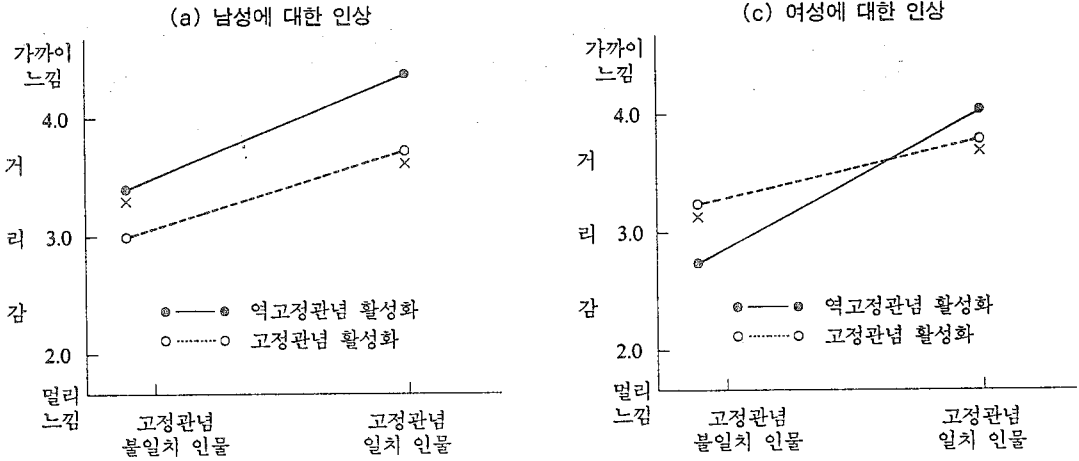
요컨대, “평소 좋아함” 측정치의 경우도 호감 평정치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역고정관념과 부정적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고정관념 불일치인물을 더 좋게 보도록 만드는 경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기억해 낸 활성화 자극의 수와 호감평정치 간의 상관계수는 16개 모두 유의하지 않아, 이런 과정이 무의식적 또는 암묵적으로 일어나는 인지과정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 사회적 거리감 평정 결과

사회적 거리감을 점수로 환산할 때, 호감 평정치와 같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해지도록, 더 가까운 사람으로 느낄수록 점수가 큰 쪽으로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영희/영호와 같은 인물을 내 ①이웃/②직장동료/③친구/④연인/⑤배우자로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문항에 동의하는지를 다섯 가지 관계유형(이웃, 직장동료, 친구, 연인, 및 배우자)별로 따로 물어 각각 표하게 하였다. 피험자가 표한 응답들 가운데 가장 깊은 관계에 해당하는 마지막의 표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인물과 같은 사람을 (1)내 이웃으로만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으면 1점, (2)직장동료로까지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으면 2점, (3)친구로까지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으면 3점, (4)연인으로까지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으면 4점, 그리고 (5)배우자로까지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으면 5점을 주었다. 대개는 점수 높은 항목에 표 했으면 그 이전 항목들도 모두 표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간혹 해당 항목 이전의 항목들 중 몇 항목에서 “그렇지 않다”고 X표를 한 경우에는 X표 하나 당 0.3점씩을 기본 점수에서 뺀 점수를 최종 점수로 삼았다. 예컨대, 한 피험자가 영희/영호와 같은 인물을 ①이웃, ②직장동료, ④연인으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③친구로는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고 했으면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4-0.3=3.7$ 로 계산하였고, 또한 ①이웃, ④연인, 및 ⑤배우자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②직장동료나 ③친구로는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고 했으면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5-(0.3 \times 2)=4.4$ 로 계산하였다.

남성인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남성인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그림 3의 (a)와 (b)에 나와 있다. 변량분석 결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으나, 부정적 활성화의 경우 고정관념 불일치인물에 대한 거리감( $M=3.25$ )보다 고정관념 일치인물에 대한 거리감( $M=3.93$ )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52)=3.30, p=.0748$ .

부정적 활성화



긍정적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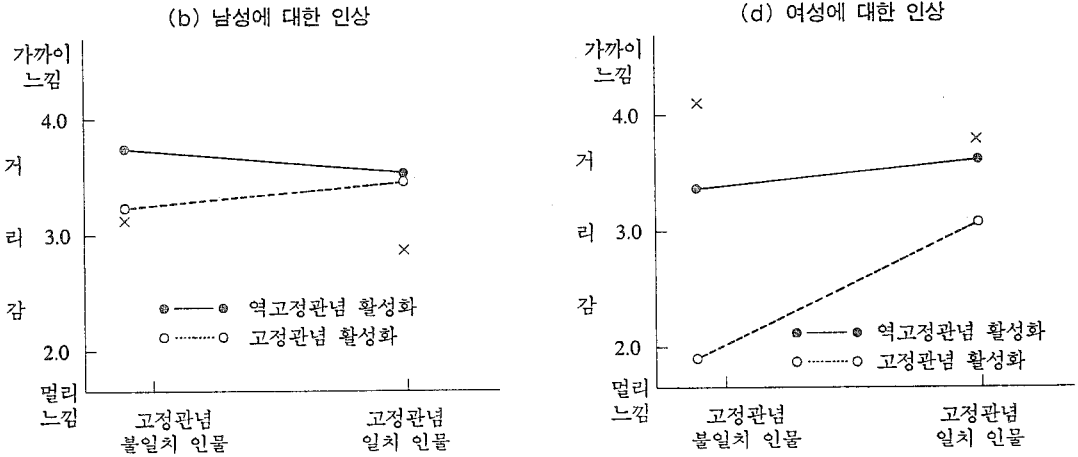


그림 3. 긍정적·부정적 역고정관념 및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남성과 여성 인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평정치에 미치는 효과 (×표는 중립활성화 조건의 평균치).

여성인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부정적 활성화의 경우, 고정관념 불일치인물에 대한 거리감( $M=3.00$ )보다 일치인물에 대한 거리감( $M=4.18$ )을 유의하게 더 가까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52)=9.87, p < .01$ . 그리고 긍정적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M=2.61$ )보다 긍정적 역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M=3.57$ ) 여성인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더 가까이 느꼈다,  $F(1, 52)=6.17, p < .05$ .

단순주효과 분석에서는 긍정적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고정관념 일치인물( $M=3.32$ )에 비해 고정

관념 불일치인물( $M=1.89$ )에게 사회적 거리감을 유의하게 더 멀리 느꼈다,  $F(1, 26)=5.77, p < .05$ . 또한 부정적 역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에도 역시 고정관념 일치인물( $M=4.29$ )에 비해 고정관념 불일치인물( $M=2.89$ )에게 사회적 거리감을 유의하게 더 멀리 느꼈다,  $F(1, 26)=6.20, p < .05$ .

전체적으로, 여성인물의 경우에 특히 고정관념 불일치인물( $M=2.86$ )보다 고정관념 일치인물( $M=3.82$ )에게 사회적 거리감을 유의하게 더 가까이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F(1, 104)=12.76, p < .001$ . 그런데 이런

결과가 사회적 거리감과 다른 호감 변인들 간의 질적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공격성을 측정하고 나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긍정적 역고정관념이나 부정적 고정관념의 무의식적 활성화를 통해 고정관념 불일치인물의 단순한 인상이나 호감은 비교적 쉽게 증가할 수 있으나, 사회적 거리감은 여전히 고정관념 일치인물에게 더 가까이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도 의식적으로 기억해낸 점화 행동의 수와 거리감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수 16개 가운데 두 개만 유의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역시 의식적인 기억과정보다 무의식적 또는 암묵적인 인지과정이 거리감 평정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감과 다른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 또 한 가지 특기할만한 결과는, 남성인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공격성 평정치와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으나 여성인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공격성 평정치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표 1 참조). 즉, 여성인물은 공격적으로 지각될수록 사회적 거리감을 더 멀리 느끼지만, 남성인물에게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공격성 지각 정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거리감은 호감보다 "평소 좋아함"과 조금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 공격성 지각: 조작 확인

기대했던 대로, 활성화 조건에 관계없이 수줍은 인물로 조작한 인물은 공격성이 낮게, 그리고 자기주장

표 1. 사회적 거리감과 다른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

	남성인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sup>1)</sup>	여성인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sup>1)</sup>
호 감	.4957*	.4600*
평소 좋아함	.5662*	.5773*
공격성	.0469	-.3877*

1) 거리감을 덜 느낄수록(즉, 더 가까운 사람으로 느낄수록) 더 큰 점수를 받도록 하여, 호감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점수를 환산함. \*  $p < .001$ .

적인 인물로 조작한 인물은 공격성이 높게 나와서 수줍은 인물과 자기주장적인 인물의 조작(manipulation)이 잘 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즉, 남녀 인물 모두 고정관념 일치·불일치 여부의 주효과가 크게 유의미했다. 남성인물의 경우는 고정관념 일치인물( $M=4.41$ )이 불일치인물( $M=2.45$ )보다 공격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으며,  $F(1, 104)=75.77, p < .001$ ; 반대로 여성인물의 경우는 고정관념 불일치인물( $M=4.84$ )이 일치인물( $M=2.70$ )보다 공격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다,  $F(1, 104)=84.17, p < .001$ .

조금 예외적으로 보이는 곳으로, 긍정적 고정관념(긍정적인 남성적 행동을 하는 남성과 긍정적인 여성적 행동을 하는 여성)을 활성화시켰을 때,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남성인물(자기주장적인 남성)의 공격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게 지각하고, 고정관념에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여성인물의 공격성은 조금 과장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2의 이탤릭체 수치 참조).

### 의식적 기억과정 대 무의식적 활성화 과정

세 종류의 종속변인을 모두 통틀어, 기억해낸 점화 행동기술문의 수는 평균 3-4개 정도( $M=3.55$ )였으며, 이것도 완전한 문장으로 기억한 경우는 거의 없고 문장들의 일부만을 기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이렇게 의식적으로 기억해 낸 행동기술문의 수와

표 2. 두 인물의 공격성 지각 평균치

	남성 인물	여성 인물	남성 인물	여성 인물
부정적 역고정관념 활성화			긍정적 역고정관념 활성화	
고정관념 일치인물	4.57	2.50	고정관념 일치인물	4.57 2.50
고정관념 불일치인물	2.00	4.93	고정관념 불일치인물	2.64 4.43
부정적 고정관념 활성화			긍정적 고정관념 활성화	
고정관념 일치인물	5.14	2.07	고정관념 일치인물	3.36 3.71
고정관념 불일치인물	2.21	4.71	고정관념 불일치인물	2.93 5.29

주. 7점척도 점수로서, 수치가 클수록 공격성을 더 높게 지각.

주요 종속변인(호감, 평소 좋아함, 사회적 거리감) 간의 상관관계수도 48개 중 3개만 유의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는 Banaji, Hardin, 및 Rothman(1993)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호감 평정 결과가 의식적인 기억과정과는 무관한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고정관념 또는 역고정관념 활성화로 인한 인상평정 결과들은 거의 모두 의식적인 기억과정에 의해 나온 효과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활성화과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로는 고정관념 활성화 연구분야에서 지금까지 비교적 덜 연구되어 온 “역고정관념(counter-stereotype)”의 암목적 활성화가 고정관념 “불일치” 인물(예: 남자같은 여자, 여자같은 남자)에 대한 인상을 실제로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뒀으로써 편견의 감소에 일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둘째로는 이와 같은 역고정관념 또는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인상형성에 체계적인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판단자들 자신은 이런 영향 과정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최근에 이론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무의식적(unconscious) 또는 암목적(implicit) 인지과정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대체로 긍정적 역고정관념 활성화와 부정적 고정관념 활성화가 고정관념 불일치인물에 대한 호감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런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남녀차별적 시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남성적 행동을 하는 여성이나 긍정적인 여성적 행동을 하는 남성의 이미지, 또는 부정적인 여성적 행동을 하는 여성이나 부정적인 남성적 행동을 하는 남성의 이미지를 은연중에 부각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부정적 역고정관념 활성화와 긍정적 고정관념 활성화는 고정관념 일치인물(예: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은 불일치인물보다 더 좋게 보는 종래의 관점을 유지 또는

강화시켰다. 이는 “착한 여자”의 이미지를 은연중에 부각시키면 적극적인 여성에 대한 인상이 보통때보다 더 나빠지기 쉬우며, “섹션한 남자”의 이미지를 은연중에 부각시키면 부드러운 남성에 대한 인상이 보통때보다 더 부정적으로(예컨대, 나약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형성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길으로 드러난 인상형성의 패턴 이외에 또 중요한 사실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암목적 또는 무의식적인 과정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피험자들은 고정관념 또는 역고정관념 활성화 조건에 따라 현저히 다른 인상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활성화 자극들의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기억 정도와 인상형성 평균치 간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성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과정에 의해 인상형성과 같은 우리의 판단과정이 체계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점들을 몇 가지 들어 본다면, 고정관념이 아닌 역고정관념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과 무의식적 인지과정을 들추어 내고자 했다는 사실 이외에도, 방법적인 면의 특성 몇 가지를 내세울 수 있겠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이 고정관념의 내용을 주로 특정형용사로 표현했던 데 비해 본 연구는 여러 단계의 사전조사에서 이 끌어낸 행동기술문들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공격적이다”라고 하는 형용사적 표현은 “싸움을 한다”는 행동의 관찰 결과로서 가능한 것이다. 즉, 형용사적 표현은 고정관념적 행동의 관찰로부터 한 단계의 추론 과정을 이미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접적이면서 단순화된 행동기술문을 고정관념 또는 역고정관념 활성화에 사용하는 것은 개념적 비약도 덜 할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를 실제 행동에 적용하는 데에도 훨씬 용이하다. 둘째로, 몇몇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남녀 이름들을 행동기술문에 짝지워 사용함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 또는 역고정관념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켰다는 점이다. “영희가 싸움을 한다”는 것과 “영호가 싸움을 한다”는 것 간에는 단순히 이름 한 글자의 차이만이 존재하지만, 피험자들은 여기서 싸움하는 여자와 싸움하는 남자에 대한 생각을 성역

할 고정관념에 비추어 전혀 상이한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다. 이점을 이용한 연구방법은 명시적으로 성역할에 관한 연구를 한다고 말하지 않고서도 암묵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름만 보고도 남녀 고정관념을 자동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태도 (strong attitudes)”라는 측면에서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고정관념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강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전라도 사투리만 듣고도 호남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떠오른다면, 혹은 흑인의 피부색만 보고도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떠오른다면, 호남인 또는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무척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편견이 덜한 사람의 경우는 사투리나 피부색이 그리 강력한 접화자극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강한 태도를 인지적 용어로는 기억에서의 접근가능성 (accessibility) 또는 중심성 (centrality)이 높은 태도라고 지칭하지만(예: Krosnick, 1986; Fazio, 1986), 일상적인 용어로는 확신(conviction)이라고도 할 수 있다 (Abelson, 1988). Abelson(1988)이 밝혀낸 확신(즉, 강한 태도)의 3요소 -- 자아 몰두(ego preoccupation), 감정적 개입(emotional commitment), 그리고 인지적 정교화(cognitive elaboration)<sup>2)</sup> -- 가운데 인지적 정교화를 제외한 2요소가 동기적 또는 감정적 요인임을 주목할만 하다. 강한 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고정관념에도 이 3요소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즉, 고정관념은 인지적으로도 정교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깊이 몰두해 있고 감정적으로도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개념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강한 태도”로서의 고정관념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쉽게 활성화될

수 있고 후속 판단에 부지불식간 영향을 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편견이나 태도의 측정 방법도 무의식적 인지과정에 근거한 간접적인 측정치를 이용한다면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보다 정확한 측정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측정 방법의 개발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가능성을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암묵적 인지 이론에 기반을 둔 암묵적 연합 검사 (Implicit Association Test, IAT)와 같은 간접적인 태도 측정 방법이 잘 개발된다면, 특히 태도에 못지않게 규범의 영향이 행동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고정관념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암묵적 방법에 의한 고정관념 감소 방안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나은영 (1994). 태도 및 태도변화 연구의 최근 동향: 1985-1994.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2), 3-33.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92.
- 차재호 · 나은영 역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국가 간 협력과 세계 속에서의 생존. 서울: 학지사.
- Abelson, R. P. (1988). Conviction. *American Psychologist*, 43(4), 267-275.
- Banaji, M. R., & Greenwald, A. G. (1994). Implicit stereotyping and prejudice. In M. P. Zanna & J. M. Olson (Eds.), *The psychology of prejudice: The Ontario Symposium*(Vol. 7, Ch. 3, pp. 55-7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naji, M. R., & Greenwald, A. G. (1995). Implicit gender stereotyping in judgments of f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2), 181-198.
- Banaji, M. R., Hardin, C., & Rothman, A. J. (1993). Implicit stereotyping in person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 272-281.
- 2) 자아몰두의 예: “그 문제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 문제는 나에게 중요하다”; 감정적 개입의 예: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내 시간을 투자하겠다”, “그 문제에 관한 내 의견을 바꾸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인지적 정교화의 예: “그 문제에 관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문제에 관해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 (Abelson, 1988, p.273). 이와 같은 3요인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태도일수록 잘 변하지 않는 확신에 가까운 “강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Bargh, J. A., Chen, M., & Burrows, L. (1996). Automaticity of social behavior: Direct effects of trait construct and stereotype activation on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230-244.
- Bargh, J. A., & Pietromonaco, P. (1982). Auto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social perception: The influence of trait information presented outside of conscious awareness o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437-449.
- Blair, I. V., & Banaji, M. R. (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e pr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142-1163.
- Brewer, M. (1988). A dual process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 In R. S. Wyer & T. K. Srull (Eds.), *Advances in social cognition* (Vol. 1, pp. 1-36). Hillsdale, NJ: Erlbaum.
- Chartrand, T. L., & Bargh, J. A. (1996). Automatic activation of impression formation and memorization goals: Nonconscious goal priming reproduces effects of explicit task instru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 464-478.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1), 5-18.
- Fazio, R. H. (1986). On the power and functionality of attitude: The role of attitude accessibility.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Hillsdale, NJ: Erlbaum.
- Fazio, R. H., Jackson, J. R., Dunton, B. C., & Williams, C. J. (1995). Variability in automatic activation as an unobtrusive measure of racial attitudes: A Bona Fide Pipel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6), 1013-1027.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2), 229-238.
- Fiske, S., & Neuberg, S. (1990). A continuum of impression formation from category-based to individuating processes: Influences of information and motivation on attention and interpretat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3*, 1-74.
- Gilbert, D., & Hixon, J. (1991). The trouble of thinking: Activation and application of stereotypic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09-517.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1), 4-27.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L. K. (in pres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 Krosnick, J. A. (1986). Policy voting in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s: An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to American polit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Lepore, L., & Brown, R. (1997). Category and stereotype activation: Is prejudice inevitab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2), 275-287.
- Posavac, S. S., Sanbonmatsu, D. M., & Fazio, R. H. (1997). Considering the best choice: Effects of the salience and accessibility of alternatives on attitude-decision consist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2), 253-261.
- Wittenbrink, B., Judd, C. M., & Park, B. (1997). Evidence for racial prejudice at the implicit level and its relationship with questionnaire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2), 262-274.

[부록] 사전조사 결과: 행동기술문의 남성성 점수와 긍정성 점수

표 3. 실험에서 점화(priming)를 위해 사용된 행동기술문들의 남성성-여성성 및 긍정성-부정성 평균점수들과 대표적인 행동 기술문의 예

행동기술문의 내용	남성성	긍정성	행동기술문의 내용	남성성	긍정성
긍정적·남성적(12문항)			긍정적·여성적(12문항)		
이삿짐을 나른다	5.40	4.47	아기를 재운다	3.20	4.73
운동을 한다	4.80	5.67	가계부를 쓴다	2.40	5.13
회의를 주관한다	4.93	5.00	요리를 한다	3.20	4.93
전기제품을 고친다	5.67	4.60	상담을 한다	3.00	5.20
너털웃음을 웃는다	5.20	5.27	미소를 짓는다	3.00	5.87
:	:	:	:	:	:
평균	5.16	5.10	평균	2.82	4.84
표준편차	0.51	0.47	표준편차	0.51	0.43
부정적·남성적(12문항)			부정적·여성적(12문항)		
담배를 피운다	5.00	3.27	수다를 떠난다	2.27	3.27
주먹질을 한다	5.53	2.13	충동구매를 한다	2.73	2.60
도박을 한다	5.27	1.67	남의 험담을 한다	3.60	1.87
술주정을 한다	6.07	2.27	질투를 한다	3.27	3.00
난폭운전을 한다	5.53	1.93	변덕을 부린다	3.00	2.20
:	:	:	:	:	:
평균	5.37	2.02	평균	2.80	2.79
표준편차	0.30	0.54	표준편차	0.69	0.50
긍정적·중성적(24문항)			부정적·중성적(24문항)		
공부를 한다	3.93	5.67	아이를 때린다	3.80	1.53
책을 읽는다	3.93	5.87	화를 낸다	4.47	2.60
인사를 한다	4.13	5.87	약속을 어긴다	4.07	1.67
친구를 위로한다	3.80	5.64	거짓말을 한다	4.27	2.00
남을 돕는다	3.80	6.40	게으름을 피운다	4.53	2.00
:	:	:	:	:	:
평균	3.97	5.32	평균	4.30	2.11
표준편차	0.28	0.53	표준편차	0.68	0.63
채우기 문항들(filler items: 모든 조건에 공통, 6문항)					
잠을 잔다	4.33	5.07	빵을 먹는다	3.60	4.47
전화를 한다	3.73	4.60	그림을 그린다	3.87	4.93
하품을 한다	4.27	4.00	글씨를 쓴다	3.93	4.47
평균	3.95	4.59	표준편차	0.29	0.38

주. 7점 척도 점수로서, 수치가 클수록 “남성적” 또는 “긍정적”임 (“중성적”의 범위는 3.5에서 4.5까지).



## Implicit Activation of Counter-Stereotypes and Impression Formation: Concerning Gender Stereotypes

Eun-Yeong Na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to show whether the implicit activation of counter-stereotypes may enhance relative favorableness of impressions for stereotype-inconsistent persons, and (2)to prove the existence of implicit cognition by showing that subjects were unaware of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y were systematically influenced by the priming behaviors in forming impressions. After constructing priming and impression questionnaires based on pretests, the experimenter made the 112 subjects each believe that the two questionnaires were made for separate experiments. While subjects being unaware of the connectedness between the questionnaires, they were first primed by (1)positive or negative (2)stereotype or counter-stereotype behavioral statements, and then asked to form the impressions of (3)one male and one female described as (4)either assertive or shy. Impressions were measured by (1)favorableness, (2)likability in daily lives, (3)perceived aggressiveness(a manipulation check), and (4)social distance. Results showed that positive counter-stereotype and negative stereotype activation increased the favorableness of impressions for stereotype-inconsistent persons, while negative counter-stereotype and positive stereotype priming maintained or strengthened the favorableness of stereotype-consistent persons. There was almost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ubjects' explicit memory for prime behaviors and impression scores. Thus, it was concluded that unconscious or implicit processes may systematically influence individuals' judgmental processes such as impression formation.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stereotype research should be theoretically reformulated in terms of automatic activation of strong attitudes.